

2007 꿈·을·쓴·다

꿈과 희망을 기슴에 품고 저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신년이다.

꿈꾸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 2007년, 미술·공연·영화 등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본다.

① 비보이 팀 '배틀모드'

한국의 비보이(B-boy)는 지난해 독일과 미국 등에서 열린 세계 대회를 석권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자임을 자랑했다.

'캡블러' 팀이 미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독일에서 열리는 '배틀 오브 아이(battle of year)'는 지난 2002년부터 우승 자리를 놓나라팀에 넘기지 않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팀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를 주는 남자(Breakdancing-boy)를 뜻하며, 브레이크 댄스를 넘어 힙합 스타일의 춤까지도 포함시키는 춤 장르 중 하나이다. 여자 댄서는 흔히 비걸(B-girl)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비보이는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TV CF에 등장하는가 하면 정식 공연 무대에 오르는 등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에도 2007년 비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비보이들이 있다. '배틀모드(Battle Mode)'가 주인공으로, 팀 이름에서부터 강인함이 물어난다.

주로 토너먼트 방식을 택하는 대회의 성격 상 춤 대결을 전쟁(배틀)이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언제든 배틀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다.

구급 29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만난 '배틀모드'의 비보이



B-BOY '지존' 飛上을...

(비상)

10명은 광주·전남지역 대회에서는 더이상 적수가 없을 정도다.

전국 진출 원년...입상 목표

하지만 전국대회에서는 아직 입상한 전력이 없다. 따라서 올해를 전국 진출 원년으로 잡았다.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비보이 유닛' 대회를 대비해 연말로 잊은 채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대회에 참가했으나 예선 탈락한 아픔이 있다. 경험 미숙이 원인이었다. 팀의 막내 배지만(18·광주공고

3년)군은 "처음 출전하는 전국 대회여서 긴장을 많이 하는 바탕에 기량을 맘껏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동안 연습도 많이 했고, 실력도 형상됐기 때문에 우승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보이 유닛대회'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32개 비보이팀이 참가한다. 고수들의 경연장이 될 이번 대회에 '배틀모드'가 육심을 내는 이유는 단단한 팀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배군처럼 10대 비보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연습과 공연, 대회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은데 군대 때문에 팀에서 이탈했던 선배 비보이들이 다시 합류해 최상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것.

기량 최상...몸이 부숴져라 연습

지난달 초 제대한 박현준(23·조선대 전기공학과 2년 휴학)씨는 "군대에서 제대한 선배들이 합류하니깐 동생들도 더 열심히 연습에 임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몸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게 조금 걱정되지만 실수 없이 팀워크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2006년 미술품 경매에 630억원 이상 몰렸다

한국 경매시장 252% 증가

지난해 국내외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된 총액은 39억2천677만원이었다. 국내외를 더한 경매 총액은 630억7천424만원이었다.

작가별 낙찰총액은 서울옥션과 K옥션의 기록을 기준으로 박수근의 작품이 12월 K옥션 경매에서 10억4천만원의 근현대 미술품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을 비롯해 총 58억1천425만원 어치가 낙찰돼 부동의 1위였다.

2위는 김환기(51억3천600만원), 3위는 이우환(31억8천515만원), 4위는 이대원(20억2천270만원), 5위는 장죽진(20억358만원), 6위는 천경자(19억6천110만원), 7위는 도상봉(18억5천900만원)이었다.

무도장? 아니 전시장이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 14일까지 '미술관 카바레'

저급한 성인 무도장(?)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카바레를 미술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이 오는 14일까지 '미술관 카바레'를 주제로 기획전을 마련했다.

모 카바레와 같은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금남로 본관은 이같은 장소적 특성을 감안, 음지문화로 꾸민 카바레 문화를 대중과 호흡하는 작품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

공모를 거쳐 전시에 참가한 29개팀 50명의 작가들은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카바레의 역사와 왜곡된 카바레 문화를 조명하는 한편, 긍정적인 위



김일근·박정일·염순영 작 '돌고 돌다'

작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참여 작가는 강영숙, 고경주, 고근호·주종, 김혜선, 나평숙, 니종록, 노영선, 박일구, 박혜련, 백정숙, 선예원, 양문기·황지영, 윤아, 이매리, 정재행, 최미연, 최춘영씨 등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인증개사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첫전도
시작만
1월 2일 까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EBS교육방송
서자직장
출제위원
최고 교수진

1
합격률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비마트 청년단 광주부문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온화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빛나시므로 편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은 우리의 몸 내부를 먼저 빠르게 해체순환을 풀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번호제 도장기록을 이용하여 만든 팔로우 필름난방은 당시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인진이 아닙니다.
제제를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제 사용으로 친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TEL.(062)262-0101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231-1140, 521-0101 휴 010-802-2532

광주은행 신용점원 대인동 소방서(전화)

송은영님 96.7점

LCT아워(주)

☎ (010) 572-8004, 휴 010-7154-6996

노동부 일정·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금과 결정여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60~10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광인증개사·주택관리사 각 60명씩 선착순 모집

일가공인증개사

☎ (010) 234-0216 휴 010-110-0896

(광우재정부부)

상가건물 매매

광주광역시 서구 75동 201호 2동 21층
금남로 1000호 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 123호 124호 125호 126호 127호 128호 129호 130호 131호 132호 133호 134호 135호 136호 137호 138호 139호 140호 141호 142호 143호 144호 145호 146호 147호 148호 149호 150호 151호 152호 153호 154호 155호 156호 157호 158호 159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164호 165호 166호 167호 168호 169호 170호 171호 172호 173호 174호 175호 176호 177호 178호 179호 180호 181호 182호 183호 184호 185호 186호 187호 188호 189호 190호 191호 192호 193호 194호 195호 196호 197호 198호 199호 200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215호 216호 217호 218호 219호 220호 221호 222호 223호 224호 225호 226호 227호 228호 229호 230호 231호 232호 233호 234호 235호 236호 237호 238호 239호 240호 241호 242호 243호 244호 245호 246호 247호 248호 249호 250호 251호 252호 253호 254호 255호 256호 257호 258호 259호 260호 261호 262호 263호 264호 265호 266호 267호 268호 269호 270호 271호 272호 273호 274호 275호 276호 277호 278호 279호 280호 281호 282호 283호 284호 285호 286호 287호 288호 289호 290호 291호 292호 293호 294호 295호 296호 297호 298호 299호 299호 300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 313호 314호 315호 316호 317호 318호 319호 320호 321호 322호 323호 324호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 331호 332호 333호 334호 335호 336호 337호 338호 339호 340호 341호 342호 343호 344호 345호 346호 347호 348호 349호 350호 351호 352호 353호 354호 355호 356호 357호 358호 359호 360호 361호 362호 363호 364호 365호 366호 367호 368호 369호 370호 371호 372호 373호 374호 375호 376호 377호 378호 379호 380호 381호 382호 383호 384호 385호 386호 387호 388호 389호 390호 391호 392호 393호 394호 395호 396호 397호 398호 399호 399호 400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409호 410호 411호 412호 413호 414호 415호 416호 417호 418호 419호 420호 421호 422호 423호 424호 425호 426호 427호 428호 429호 429호 430호 431호 432호 433호 434호 435호 436호 437호 438호 439호 439호 440호 441호 442호 443호 444호 445호 446호 447호 448호 449호 449호 450호 451호 452호 453호 454호 455호 456호 457호 458호 459호 459호 460호 461호 462호 463호 464호 465호 466호 467호 468호 469호 469호 470호 471호 472호 473호 474호 475호 476호 477호 478호 479호 479호 480호 481호 482호 483호 484호 485호 486호 487호 488호 489호 489호 490호 491호 492호 493호 494호 495호 495호 496호 497호 498호 499호 499호 500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509호 509호 510호 511호 512호 513호 514호 515호 515호 516호 517호 518호 519호 519호 520호 521호 522호 523호 524호 525호 526호 527호